

금남로 지하상가 지반붕괴 날벼락

亞전당 주차장 공사중...상가 대피 소동

광주시 금남지하상가
가 지반이 내려앉으면
서 도로 일부와 상가
등이 붕괴, 주변 일대
가 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6면〉
19일 오후 5시30분
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금남지하상가 지
반에 무너져내려 냉각
탑 3개중 1개가 기울고
금남지하주차장과 일
부 상가로 토사가 쏟아
졌다. 사고 직전 지하
주차장 직원 4명이 밖
으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
장 내 차량 50여 대가
고립됐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이날 밤까
지 119구조대나 공사
관계자가 진입하지 못
했다.

또 냉각탑 지지대와
주변 20여m가 무너져
내리면서 먼지와 토사
가 금남지하상가 2공
구 점포 3곳을 덮쳤으
며 이로 인해 상인과
시민들이 긴급대피하
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
주동부경찰 1개 중대
와 직원 등 200여명과
119 구조대와 소방차

20여대와 소방대원 100여명 등이 긴
급 출동해 금남지하상가 입구와 사고
현장 일대를 통제했다.

경찰은 냉각탑 주변에서는 D건설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하 4층 주
차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5·
18 3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해
분수대 주변에 무대가 설치돼 있어
인근 지반이 악화되면서 지반이 침하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금남지하주차장
위 지반이 무너져내리면서 냉각탑이 기울어지고
도로 20여m가 붕괴됐다.

〈나영주기자 mjna@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원
인을 조사중이다.
또 사고 현장 일대 도로 일부가 균
열되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도 높아
경찰은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보수공
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할 방침이다.
〈임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亞 전통악기의 하모니

한국의 가야금을 비롯, 아시아 11개
국의 52개 전통악기로 구성된 '한·아
세안 전통오케스트라'가 5·18 30주
기를 기념해 19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첫 선을 보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추진단이 2014년 개관 예정인 국
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예술 커뮤
니티 첫 프로젝트로 기획한 전통오
케스트라는 앞으로 문화전당 예술극
장을 거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지방선거 D-13 이렇게 치르자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0
일부터 시작돼 13일간의 열전에 돌입
한다.

〈관련 기사 3·4·5·6면〉

정부가 이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를 발표한 예정이어서 지방선거 판도
에 메가톤급 '복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민
주당 공천잡음으로 인한 무소속 돌풍
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층
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 독점이 뻔
하다는 예상과 돈과 협연 투표가 판을
칠 것이라는 폐쇄주의의 판도이다.

광주일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
한 세력의 지방자치 진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고주의 투
표는 지양하고, 특히 처음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자치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만큼 적극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지난 20년 동안 광주·전남의 지방선거는 대부분
민주당 친창로 끝났다.

민노당 비례대표들이 일부 진출했을 뿐이다. 제5
대 광주시의원만 해도 19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

다. 집행부 수장이 같은 당이 이어선지 견제는 뒷전이
었다. 대신 5명이나 선거법 혹은 비리로 물러났다.
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까지 동원해 선거구제도 바
꿨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지 못

한 단적인 폐해다.

이번에는 특정정당 후보를 무조건 쳐지 말고 인
물과 정책을 따져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
이 커지고 있다.

2 돈선거 그만

이번 선거에서 별씨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100건을 넘어섰다. 현직 군수가 구속되고 최고 30
배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과거 선거에서 돈 선거로
뽑힌 일부 단체장이 낙마하는 사례도 흔했다. 민선
4기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중 7명이 선거법 또는 비
례로 중도사퇴했다. 이에 따라 또 선거를 치를 때에
따라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발전도 저해됐
다. 돈 주는 후보를 뽑으면 손해는 주민이 본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돈을 쓰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다.

선거에서 학연·지연·혈연에 따라 표를 쳐는 것
은 오랜 악습이다. 특히 전남 시군에서는 연고주의
선거가 더 긴박하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학
연·지연·혈연에 묶여 '고정표'로 이어지고 있는 셈
이다. 하지만, 연고주의 투표는 부정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과 인물 대결을 해야 지역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 선관위와 시민단체도 연고주의 탈피를 통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95
년 제1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광주 64.9%, 전남 76.
1%를 기록했지만, 민선 4기 선거에서는 광주가
46.3%, 전남 64.3%로 뚝 떨어졌다. 이번에도 투표
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무
응답층이 50%를 넘었다. 광주·전남 교육을 책임
하는 수장을 뽑는 선거인데 큰일이다. 지방의 실권
을 직접 책임지는 단체장·지방의원 선거는 국회의
원 선거보다 중요하다. 특히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
가 절실히 하다.

〈최현기자 cki@kwangju.co.kr

3 연고주의 벗자

선거에서 학연·지연·혈연에 따라 표를 쳐는 것
은 오랜 악습이다. 특히 전남 시군에서는 연고주의
선거가 더 긴박하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학
연·지연·혈연에 묶여 '고정표'로 이어지고 있는 셈
이다. 하지만, 연고주의 투표는 부정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과 인물 대결을 해야 지역 발전도 앞당길 수

4 무관심 추방

있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디온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유행!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파편에 한자 표식...北 수입 중국제 어뢰 결론

오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를 근거로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을 것으로 결
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3·5·6면〉

특히 북한은 80년대 중국에서 '魚
(YU.한국발음은 위)-3G' 음향 어뢰
를 수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9일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조된 어뢰 내부에는 각
각 한자와 러시아어가 적혀 있다"면
서 "이번에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에는 '한자'가 적혀 있는 것이 식
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어뢰 파편에 북한

글씨의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는 보도
가 있지만 딱히 일련번호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다만, 어뢰 파편에 새겨진
것은 러시아어는 아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중국서 수입한 '魚-3G'를
비롯한 ET-80A, TYPE 53-59, TYPE
53-56 어뢰 등을 잠수함(정)에 장착
운용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합조단은 20일 오전 공개하는 조사결
과 발표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준비된 교육감 네번째 칸 이정재



모두가 행복한
영광 고등학교
설립

이전에도 함께 만들어온 서정한 시대!

리비	한국에서 제작된 청탁금지법 제정 운동
리비	한국에서 제작된 청탁금지법 제정 운동
리비	한국에서 제작된 청탁금지법 제정 운동
리비	한국에서 제작된 청탁금지법 제정 운동
리비	한국에서 제작된 청탁금지법 제정 운동